

“4차 산업혁명 맞는 인재 육성” “교육청 권한 분산·주민참여 확대”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정책 들여다보니

장휘국 시교육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등
‘교육적폐’ 대입제도 개선

장석웅 도교육감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확대
작은학교 살리기 역량 집중

앞으로 4년간 광주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육성에, 전남교육은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확대 등 교육청 권한 분산이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2일 간부들과 점심을 하면서 태풍 및 장맛비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학교와 학생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취임 첫 방문지로 학생수 42명의 작은학교인 무안 청계남초등학교를 찾아 먹거리를 살피며, 우수작품 늘어나는 전남지역 폐교,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취임사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역점 정책을 제시했다.

3선에 들어간 장 교육감은 성적으로 아이들을 잘 세우는 대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협동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가진 지식을 꼭 넓게 활용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고 대우받는다 판단에서다. 장 교육감이 선거기간 공약한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 부지의 경우 광주자연과학고 유휴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가장 큰 교육적폐로 대입제도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시경쟁교육의 폐단이 교육의 본질을 잃게 했으며, 초·중·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우선 대입제도 5년 예고제를 마련하고,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계층, 학교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뒤 “17개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입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일 취임 첫날 점심식사를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하면서 태풍과 장맛비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전남교육의 최대 현안인 작은학교 살리기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 교육감이 교육청 권한 이양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추천교육장공모 및 교장공모 확대다.

전남교육청은 직선 1, 2기 장관제 교육감 시절, 전체 22곳 시·군 교육지원청 가운데

데 절반인 11곳의 교육장을 공모제로 전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전원 임명직 교육장이 이르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 확대 메시지를 내놓았으나, 구체적 범위와 대상 교육지원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사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교육감 공모 외에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대대적인



장석웅(오른쪽) 전남도교육감이 2일 취임 첫 외부 행사로 학생수 42명의 작은학교인 무안 청계남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개혁이 감지된다.

장 교육감은 취임 전 교육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교사와 학교를 힘들게 하는 사업청으로 전락해버렸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조직 개편 의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장 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이날 무안 청계남초등학교를 찾아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향을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학교의 경우 조리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에서 지은 밥과 반찬을 가져와 먹는 ‘이동급식’을 해왔는데, 식중독 우려 등 학부모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장 교육감은 이날 청계남초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며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공무원노조 ‘정부교섭’ 10년만에 재개

‘2008 정부교섭’ 상견례 ... 노조, 2009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 최우선 의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첫 타결 후 이명박정부(MB)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번 교섭은 대한민국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74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2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김판석 인사처장 등 정부 대표 7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밝혔다.

74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공노총(조합원 9만9000여명) 소속 6명 ▲전국공무원노조(9만명) 소속 3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4000여명) 소속 1명 등 총 10명이 교섭대표로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측 교섭대표로는 김판석 인사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들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직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74개 노조 조합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교사제외), 법원공무원 등을 총망라한다.

정부교섭은 2006년 처음 시작돼 2007년 12월 14일 ‘2006 정부교섭’이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고, 이후 ‘2008 정부교섭’이 2008년 9월 시작됐으나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1차 예비교섭 후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적 분쟁 등이 해소되고, 작년 10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예비교섭을 벌여 이날 본교섭에 이르게 됐다.

‘2018 정부교섭’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08년 중단됐던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기에 ‘2008 정부교섭’이다.

협상 대상은 조합활동·인사·보수·복무·연금복지·성평등·교육행정 등 7개 분야의 218개 의제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최우선 의제로 2009년 노동부의 공무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를 꼽는다.

당시 노동부는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344개 조항이 위법하거나 사회합의의 도를 넘어 불합리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민식 공노총 단체교섭특위 위원장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시정 대상이라 정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에 임금과 근로조건, 그 밖의 후생복지에 대해 교섭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의 분리를 요구한다.

정부 측에서는 ‘공무원 임금’은 국회의 예산권한이고, ‘성과연봉제’는 제도의 문제라서 정부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연합뉴스

“뺨 놓은 사냥꾼” “법적 책임 없어”

안희정 첫 재판 공방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으로는 처음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리 2일 법원 청사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재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출석 여부를 묻는 재판장 조 부장판사의 인정신문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재판장은 “지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전 충남도지사’로 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재판과 점심시간 휴경 후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서류증거를 제시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고소인 김씨는 씨에게 보낸 메시지, 김 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료받으려 한 사실, 김 씨 폭로 후 안 전 지사 가족들이 이 씨 사생활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말을 절대적으

로 따라야 했던 업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재판 상황,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 등도 증거로 나왔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러시아에서 김 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해 간음했는데, (이는) 뺨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 심부름을 시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고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누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가혹한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도덕적·정치적 책임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환,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시법원장, 광주 출신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시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옆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리모델링원룸 땅 144㎡ 2중주택 118㎡ 1억9500
- 화산 동면 땅 706㎡ 2중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투자·매도·교환

- 북구 장등동 주거지역 땅 2925㎡ 은행 3억 매도 4억6천
- 장흥 부산면 산 566083㎡ 은행 2억3천 매도 6억
- 무안 망운면 목서리 도로접 전 2238㎡와 현경면 해운리 대지 555㎡ 귀농생활적합 은행 9천 인수하고 25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동 주거지역 5223㎡ 공시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출몰 2억
- 수목정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함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6억5천

상가건물

- 북구 우산동 대로접 땅 377㎡ 건물5층 972㎡ 은행8억 매도19억5천
- 동구 충장로57점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5㎡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카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